

(韓國語)

현민 여러분께

어제, 시마네현 처음으로 마쓰에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.

마쓰에 보건소에서는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, 감염경로 및 밀접촉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현에서는 앞으로도 국가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현민 여러분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시행하겠습니다.

또한, 현민 여러분의 상담에 대응하기 위해,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담창구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

현민 여러분께는 감염증 집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, 계속해서 다음의 3 가지 조건,

환기가 잘 안 되는 ‘밀폐 공간’

많은 사람이 모이는 ‘밀집 장소’

가까이서 대화하는 ‘밀접한 상황’

을 피하는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현민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몸 상태가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.

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이외에도 많이 있기에, 다음 2 가지 기준,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 내에 7 개 설치된 ‘귀국자·접촉자 상담 센터’에 상담해 주십시오.

(표준이 되는 기준)

- ① 감기 증상이나 37.5℃ 이상의 발열이 ‘4 일’ 이상 계속되고 있다. (해열제를 계속 먹어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)
- ② 강한 권태감의 증상 및 숨쉬기가 힘들다.

다만, 고령자나 기초 질환 등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감기 증상이나 37.5℃ 이상의 발열이 ‘2 일’ 정도 계속되는 경우, 또한 강한 권태감의 증상 및 호흡이 힘들신 경우 상담센터에 상담해주십시오.

현은 현민의 안전·안심을 지키기 위해, 국가 및 시정촌, 관계기관과 연계를 긴밀히 하면서 감염 확대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.

현민 여러분께는 지나친 걱정 없이, 올바른 정보에 따라 냉정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.

레이와 2 년 4 월 10 일

시마네현지사 마루야마 다쓰야